

IBKS Economy Monitor

Focus on Week: 7월 높아진 소음과 8월 이후 경기사이클 변화 조짐

높아진 시장 변동성과 여러가지 우려가 점증하는 소음은 경기사이클의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 ➡ 8월 이후에는 선행성을 갖는 경기지표들이 순차적으로 변곡점이 형성되는 상황 주시하며 투자환경을 판단할 필요

이번 주까지 6월과 7월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수출입 실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했고 6월 산업활동지표들 역시 생산과 소비 모두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실물지표뿐 아니라 소비자기대지수나 기업체감경기지수와 같은 심리지표들도 개선된 수치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호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시장과 경제의 소음이 지표로 보이는 성과와 달리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반도체 쏠림의 이면에 있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크게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 그리고 반도체 경기 정점 논란이나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치에 대한 부담 등이다. 여기에 최근 다시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험 증가나 점점 더 불가측성이 높아지는 트럼프 정부 그리고 이번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간선거 등 대외 요인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런 소음들은 기대와 우려를 만들어 내는데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심리 변화를 간파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변화가 경기사이클의 변곡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소음의 증가는 우선 뉴스 흐름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이벤트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뉴스심리지수(한국은행 발표)인데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는 주가지수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뉴스들을 반영하며 진폭이 커지는 흐름이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상반기기를 고점으로 점차 하향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뉴스보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뉴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흐름이다.

경제와 시장 주변의 소음을 계량화 해주는 뉴스심리지수의 흐름은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흐름과 매우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뉴스심리지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를 반영하거나 영향을 주는 뉴스들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두 지수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심리지수는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지만 우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뉴스 흐름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반도체 호황이 견인하는 주가지수가 경기선행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이후 상황은 변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경기 선행지수를 대부분 설명하는 주가지수의 7월 낙폭을 감안하면 경기선행지수는 빠르면 8월 변곡점을 형성하고 다시 뉴스심리지수의 흐름과 동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Economist

정 용 택

02) 6915-5701

ytjeong0815@ibks.com

RA

김 희 주

02) 6915-5685

nkhj0130@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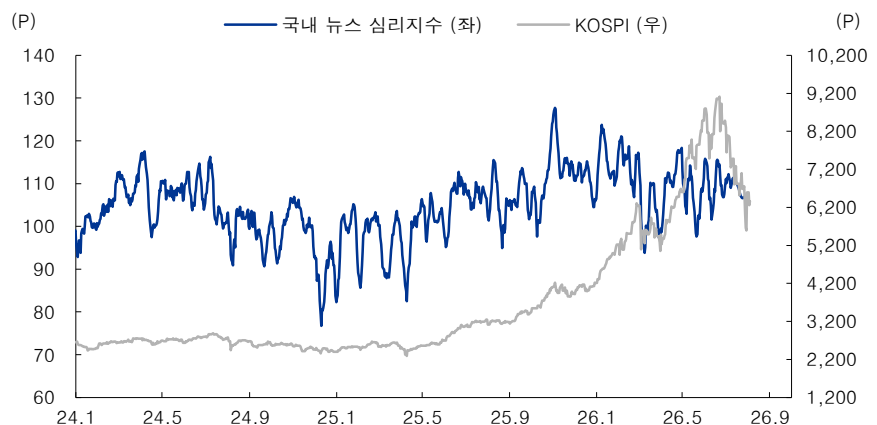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기선행지수 흐름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기대지수 등 선행지표와 금융지표 변화를 통해 경기선행지수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성장률의 변곡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추적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해와 1년 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는 흐름이다. 12개월 Forward 방식으로 이 흐름을 지수화해서 보면 데이터가 지나치게 늦게 발표되는 실제 경제성장률 흐름을 선행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관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이 경제성장률 기대치 변화를 1~4개월 정도 선행해서 보여준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호황을 뒤따라가며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최근 뉴스심리지수의 흐름은 경제성장률 기대치의 변곡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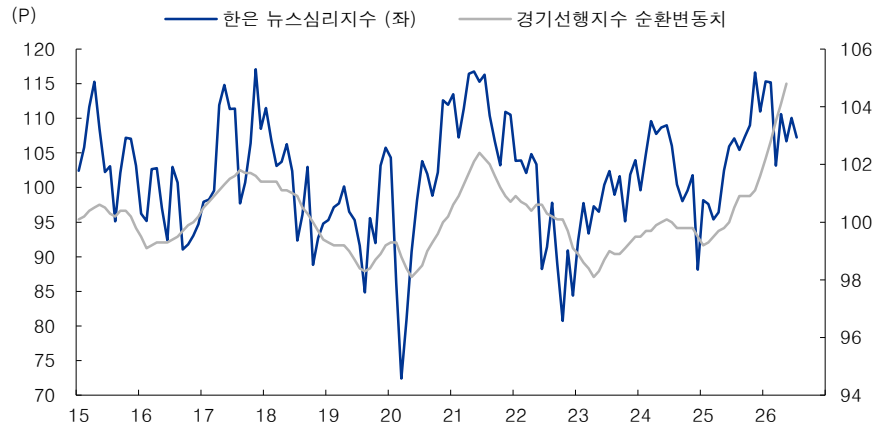
즉, 지금 보이는 경기나 금융시장 관련 여러 가지 소음은 하반기 이후 경기변곡점을 대비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8월 이후에는 선행성을 갖는 경기지표들이 순차적으로 변곡점이 형성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투자환경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12개월 Forward 방식으로 경제성장률의 흐름을 추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8월 이후는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 기대치에 대한 가중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 투자자들의 시선도 당연히 올해 확인되는 성과보다는 내년 예상되는 성과에 더 맞춰지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는 주가지수나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는 뉴스들을 반영하며 진폭이 커지고 추세적으로는 하향 전환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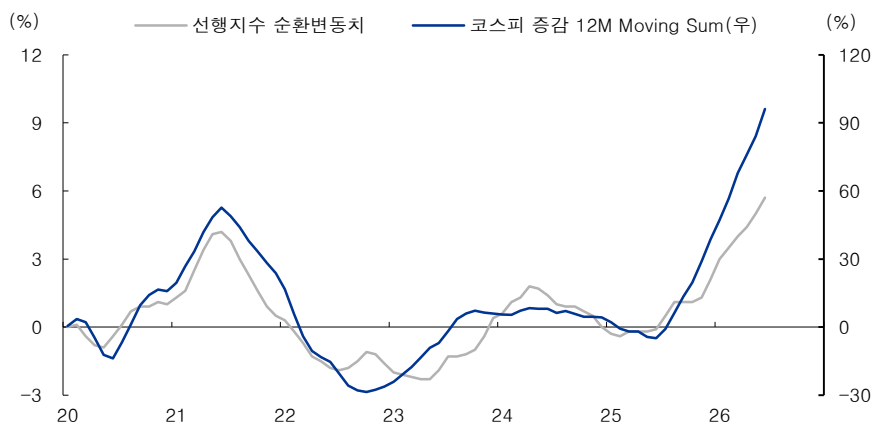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2. 경제와 시장 주변의 소음을 계량화 해주는 뉴스심리지수의 흐름은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흐름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 형성 ▶ 선행지수 변곡점이 가까워지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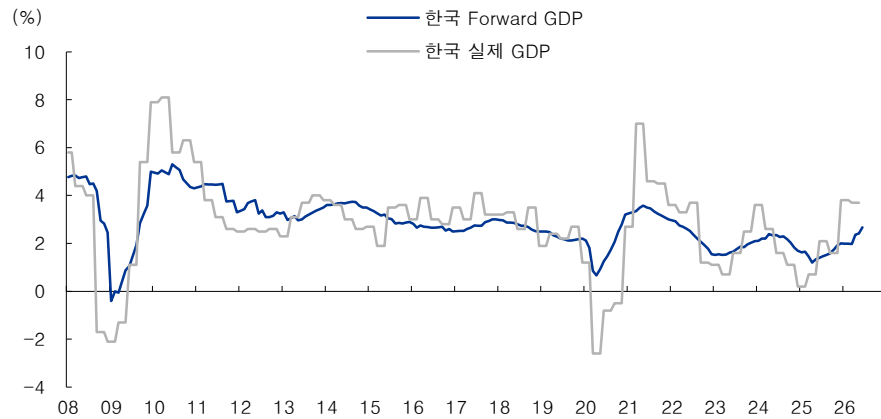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OSIS, IBK투자증권

그림 3. 최근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에 주가지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만큼 7월 큰 폭의 주가 하락은 향후 선행지수 추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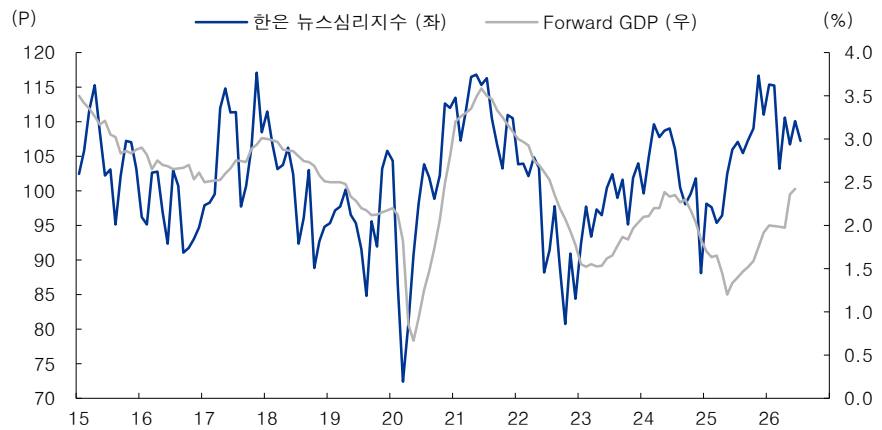
자료: KOSIS, IBK투자증권

그림 4.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추적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해와 1년 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하는 흐름 ➡ 후행성을 보완하고 추세적 흐름이 일치되기 때문 ➡ 8월 이후는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 기대치에 대한 가중치가 더 늘어나기 시작



자료: KOSIS,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5. 지난 2/4분기 이후 뉴스심리지수 변화는 소비자기대지수 등センチ먼트 지표와 금융지표 변화를 통해 경기선행지수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성장률의 변곡점을 암시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IBK투자증권